



# KLPGA 투어 제주 개막전 취소 가닥

4월 9일 예정 롯데렌터카오픈 내년으로 미뤄질 듯  
주최사 롯데·중계방송사·제주자치도 등 의견 모아

다음 달 개막하려던 국내 남녀 프로 골프 투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이 잡힐 조짐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오는 4월9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에서 열려던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을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은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이다.  
앞서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 이어 4월 17~19일 개최 예정이던 셸트리온

퀵스 마스터스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KLPGA투어는 코로나 19의 확산이 지속한다면 대회 개최 때 선수, 캐디, 관계자 모두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대회 강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수과 캐디, 그리고 대회 운영 요원 등 500여명에다 방송 중계팀, 보도진, 갤러리 등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대회장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들을 모두 격리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  
만에 하나 선수들이 확진자와 동

선 접촉했다는 이유로 격리되면 아예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KLPGA는 고민이 깊다.  
특히 온 국민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골프 대회를 여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럽다는 판단이다.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야구가 개막을 늦추고, 프로농구와 프로배구가 리그를 잠정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KLPGA투어는 대회 주최사 롯데, 중계 방송사, 그리고 대회 개최지 지방정부인 제주도 등과 긴밀하게 논의한 끝에 올해는 대회를 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KLPGA투어가 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은 가을까지 일정이 빽빽해 올해 안에는 대회를 치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LPGA투어는 일단 롯데렌터카 여자오픈과 셸트리온 퀵스 마스터스 등 2개 대회만 열지 않고 4월 24일~26일 경남 김해에서 열기로 한 넥센·세인트라인 마스터스는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4월 중순이면 어느 정도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는 개막전인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이 4월 23~26일로 일정이 겹쳐 있는 만큼 아직은 연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리아투어는 시즌 개막에 앞서 해마다 치르던 미디어데이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 제주살이 초보 남기일 감독 “축구에만 집중”

“수비 조직력 다듬기 주력”  
리그진행 가상 실전운영



전술을 설명하고 있는 남기일 감독. 연합뉴스

“예전부터 조용한 곳에서 원하는 선수들만 데리고, 다른 생각 없이 훈련만 열심히 하고 경기에 매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주에서 실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네요.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제주도의 유일한 ‘프로스포츠 구단’인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은 지 두 달 남짓. 남기일 감독은 ‘몰입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12일 전화로 만난 남 감독은 “훈련을 통해 전술적으로 세밀하게 다듬고,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아는 시간도 많이 갖고 있다. 언제 리그가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팀 사상 첫 강등의 아픔을 딛고 남 감독과 함께 새 출발한 제주는 1월 21일부터 태국 치앙라이에서 3주 가량을 보내고 돌아온 뒤 제주에서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남 감독은 “외부로 나갈 수 없으니 선수들이 답답한 부분은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다들 헌신하고 있다”면서 “클럽하우스 소독, 외부인과의 접촉 자제 등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며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제주에 처음엔 그런

(지리적 특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왔는데, 막상훈련에 열중하다 보니 ‘간혀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면서 “선수들과 함께 축구만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다. 미뤄지는 시간은 발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감독은 리그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로 훈련과 ‘가상 실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고참 정조국을 비롯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대체로 잘 따라와 주고, 올라와 있다”고 평가하면 서도 남 감독은 100% 만족하지는 않았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축구고, 팀은 만들수록 문제점이 나온다. 시즌 전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 긍정적”이라면서 “수비에서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는 부분, 유기적인 플레이와 대처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고 귀띔했다. 팀을 맡고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골이 많이 나는 축구’를 일성으로 밝혔던 그는 “그 부분에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 “수비 조직력 부분만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부리그에서 뛰던 지난 시즌 전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정조국, 주민규, 김영욱, 윤보상 등 보강에도 박차를 가하며 제주는 이번 시즌 K리그2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1·2부를 오가며 2차례 승격을 일궈낸 남 감독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남 감독은 “이번 시즌은 감독들이 많이 바뀌고 뜻하지 않은 (개막 연기) 상황이 생겨서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면서 “저희는 하루하루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미리 보는 K리그1 MVP  
11년만에 복귀한 이청용

코로나19 여파로 K리그 개막이 연기된 가운데 미리 보는 최우수선수(MVP)·영플레이어로 각각 이청용(울산)과 조규성(전북)이 뽑혔다.  
연맹이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진행한 모의투표에는 K리그1 12개 구단 감독과 주장, 미디어가 참여했다.  
투표는 실제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MVP와 영플레이어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K리그1 12개 구단이 소속 선수 중 2명을 MVP와 영플레이어 후보로 추천했고, 1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감독(30%), 주장(30%), K리그 취재 미디어(40%)가 1인 1표씩 행사했다.  
MVP는 2019시즌 MVP 김보경(전북),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세정야(대구), 그리고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이청용(울산)의 3파전 양상이었다.  
결국 미디어로부터 최다 득표(54표 중 28표)를 받은 이청용이 최종점수 33.24점으로 ‘미리 보는 MVP’에 선정됐다. 이어 감독들로부터 제일 많은 선택(12표 중 5표)을 받은 세정야(28.89점), 주장들 사이에서 최다 득표(12표 중 4표)를 기록한 김보경(23.43점) 순이었다.  
이청용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다. 완벽한 적응과 동료들과의 호흡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덩크슛은 이렇게 하는 거야 뉴욕 닥스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애틀랜타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미국프로농구(NBA) 정규시즌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36-131로 승리했다. 뉴욕 닥스의 센터 타지 깁슨이 애틀랜타 호크스의 케빈 휴터(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덩크슛을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NBA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 결정

유타 센터, 루디 고베르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프로농구(NBA)마저 중단시켰다.  
NBA 사무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나오자 리그를 전면 중단했다.  
NBA 사무국은 12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유타 재즈 선수가 사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날 유타-오클라호마시티 선더 경기는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예정된 경기 이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리그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NBA는 선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 등 외신은 유타의 프랑스 출신 센터 루디 고베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유타는 이날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체서피크 에너지 아레나에서 오클라호마와 2019-2020시즌 NBA 정규리그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 시작을 앞두고 심판진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고,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돌아갔다. 결국 예정했던 경기 개시 시간 35분 전 경기 취소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NBA는 “경기 시작 직전 유타 선수의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왔다”면서 “감염된 선수는 경기장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타와 오클라호마시티 선수들은 일단 경기장에서 격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NBA는 최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무관중 경기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선수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 WINIX

# 공기청정기

**WINIX novita**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마린사거리  
● 빽스 ● 요양병원 ● 마리나호텔  
신제주로터리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타워프라임

APRM833-JWK (26평)  
~~599,000원~~  
**500,000원**

타워X

ATGM500-JWK (15평)  
~~329,000원~~  
**265,000원**